



보도자료

▶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시민석 과 장
장미혜 서기관
김태령 주무관

▶ 2009. 3. 16 배 포
▶ 총 7 쪽

T E L 6902-8221
E-MAIL
FAX 503-9538

실업자 직업훈련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

- ◆ 수요자(훈련생)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를 지난해 대구·광주 지역 시범운영에서 3월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 ◆ 1인당 200만원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전국 어디서나 훈련 참여 가능

-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훈련기관 중심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훈련생)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를 3월 16일부터 전국에서 시범 실시 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대구·광주지역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어 왔으며, 금년 2월말까지 17,663명에게 계좌를 발급, 이 중 7,820명(44.3%)이 훈련에 참여하는 등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계좌 사용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훈련과정 탐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훈련 참여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는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기존 실업자훈련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 산업현장 및 훈련생 수요와 괴리가 나타나고 수요자인 훈련생이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 **계좌 발급대상자와 신청절차**는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금년 약 5만여명에게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전국 82개소)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 1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로 지원 된다
- 다만,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 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 ※ 예시> 훈련비가 40만원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원은 계좌에서 지급된다
- 단,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고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일부)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계좌를 발급하며 자부담을 면제하고 지원한도액도 없이 전액 지원

□ **훈련생의 합리적인 훈련과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 고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상담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합훈련과정목록을 제공(노동부장관이 공고)하면 훈련생은 그 중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 전국 시범운영 기간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4,500여개로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2,118개)에 비해 대폭 늘어나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 **지난해 9월부터 대구·광주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만족도 조사)을 얻고 있어**

- 금년 3월 16일부터 전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받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 훈련의 성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4개 지방노동청장(서울, 부산, 경인, 대전)은 3.16일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는 구직자에게 계좌와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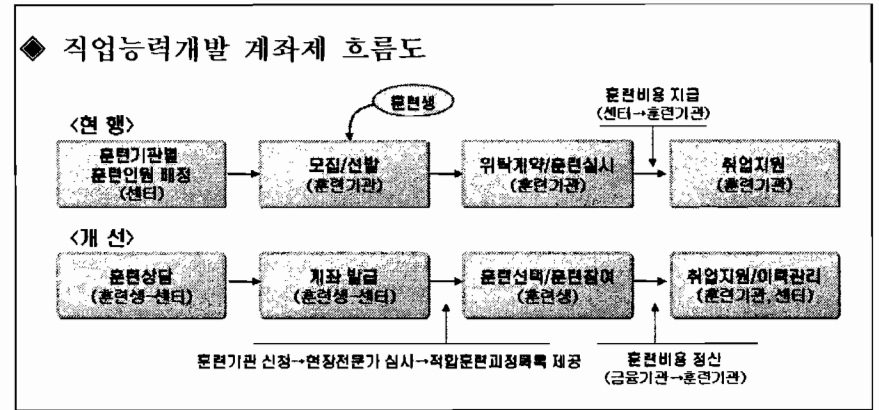
- 【붙임】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2. 현행 실업자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붙임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 **개념**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



□ **훈련상담·계좌발급**

- (**'09년 대상**) : 전직·신규실업자(일부) 시범실시
 - 상담을 통해 훈련직종(취업희망분야)을 협의·선정하고 계좌 발급
- (**지원수준**)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현행은 정부표준훈련비 기준) 지원 및 교통비·식비 별도 지원
 - 훈련비의 20%는 훈련생이 부담토록 하여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
- (**계좌형태**)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도입,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 부여
 - 훈련비용 산정·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처리

- 계좌는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 로 지원액이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기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현행은 정부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 정보제공 및 훈련과정 선택

- (적합훈련과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산업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훈련과정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을 제공
- (정보제공)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 내용, 시설·장비·교사,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
 - 사전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의 보다 많은 참여 유도

□ 훈련실시 및 사후관리

- 부정발생시 제재처분을 엄격 적용하고,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철저
 - ※ 신용카드를 통한 출결관리로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 예방 기대

2. 기대효과

- (훈련생) 훈련시장의 서비스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훈련상담,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 (훈련기관) 정부지원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 강화
 - 정해진 물량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 없이 경쟁력있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훈련운영 가능

- (정 부) 훈련비 일부 자부담,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용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관서의 훈련비 신청·지급업무 부담 완화

□ 대구·광주지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현황 ('09.2.28 현재)

<1> 계좌 발급 및 훈련 참여 현황

- '09.2월말 현재, 대구·광주지역에서 17,663명에게 계좌를 발급하였으며, 이 중 7,820명이 훈련참여 중임(44.3%)
- 적합훈련과정은 총 529개이며, '09.2월말 현재 반복개설을 포함한 개설 과정 수는 595개('07년 1년간 389개)

<2> 훈련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08.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08.12월에 계좌제 훈련 참여자와 기존 실업자훈련 참여자, 양 훈련에 모두 참여한 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 전반적으로 계좌제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계좌제 훈련과 기존 실업자훈련 참여자 간 비교(5점척도)>

구 분	훈련내용의 취업유용성	전반적인 만족도
계좌제 훈련	4.11	4.12
기존 실업자훈련	3.86	3.96

<양 훈련을 모두 경험한 자에 의한 훈련 간 비교(5점척도)>

구 분	훈련내용의 취업유용성	전반적인 만족도
계좌제 훈련	4.14	4.03
기존 실업자훈련	3.67	3.93

※ 조사 대상(총 600명)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이용자 250명, 실업자 직업훈련 이용자 250명,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및 실업자 직업훈련 2개 제도 이용자 10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 08년 12월 초순 전화 조사하였으며 직업훈련 이용자의 표본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여부를 감안 구성

붙임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실업자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지원>	<훈련생 지원>
지원체계	<p>정부 → 훈련기관 → 훈련생</p>	<p>정부 → 훈련생 → 훈련기관</p>
공급기관	○ 한정된 공급기관	○ 다수의 공급기관
훈련기간	○ 6개월 또는 1년 등 획일적 ▲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 수준별 학습 곤란 ※ <예시> 웹디자인과정이 기초~심화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	○ 다양한 훈련과정 ▲ 본인에게 적합한 단기과정들을 조합하여 수강→개인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가능 ▲ 사전 학습경험, 직장경력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심화과정 수강 가능 ※ <예시>: 웹디자인과정은 ①IT기초, ②포토샵, ③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세분화 가능
훈련상담	○ 고용지원센터의 훈련상담 서비스 미흡	○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급시 상담 강화(필수사항) ▲ 훈련상담을 거쳐 계좌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훈련 수강분야를 협의 결정
훈련정보 제공	○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 ○ 훈련생에 의한 평가기능 없음	○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 과정 수강 후 훈련생의 평가 의무화
지원방식	○ 참여횟수 제한방식(3회)	○ 지원금액 한도 설정방식 (200만원) ▲ 일정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성 강화
훈련비	○ 표준훈련비 단가 기준 ▲ 정부 책정 훈련비단가 적용 ▲ 훈련기간 장기화, 부실훈련 등 부작용	○ 훈련서비스 시장가격 기준
고용지원센터 역할	○ 훈련기관 관리에 초점	○ 훈련생 지원 및 훈련기관 관리 병행